

▶ 매일 INDEX



4면

제단소 김종한우, 전국에 유통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음 11월 23일) 제3163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김관영 도지사, 日 세일즈 외교 시작

도레이 본사 방문… 대규모 외자유치 나서

동경 한국상의와 협약… 경제 교류 등 협력 구축

일본 세일즈 외교활동을 시작한 김관영 도지사가 일본 대기업 수뇌부를 만나 대규모 외자 유치 작업에 나섰다. 김 지사는 15일 도레이첨단소재(주) 이영관 회장과 함께 도레이 본사에서 낫카루 아기히로 사장을 만나 새민금으로의 투자 요청을 직접 전했다. 일본 도레이 사장은 추가 투자 적극 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도레이첨단소재(주)는 한국 화학섬유 산업에서 시작해 군산 새민금산단에 지난 2014년 3,054억원을 투자, 세계 최초 일관생산체계 PPS 공장을 설립, 운영하며 국내 최대 PPS 수지와 PPS경피드를 생산하고 있다. 또 도레이첨단소재(주)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한국정부에

마스크 핵심소재인 MB필터의 대량 공급으로 미스크 수급안정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낫카루 아기히로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투자를 적극 제안하고 한국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낫카루 아기히로 도레이 사장은 “김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추가 투자에 대해 전북 새민금 산단을 투자지역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이에 앞서 이

날 동경 한국상공회의소(회장 김순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전북 경제 전반에 대한 교류와 함께 국제 행사의 전북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미국 출장시 LA 한인상공회의소,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종연합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이은 것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 상공인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전북 생산품의 수출 확대와 2024년 세계 한상대회 유치를 이루내겠다는 김관영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기자



제37대 전북체육회장 선거일인 15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정강선 당선인이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연임 성공

170표 얻어… 경쟁 중인 김동진 후보에 10표 차로 당선
 “선거로 분열된 전북 체육 봉합·화합의 체육 만들 것”

현 전라북도체육회장인 정강선 후보가 연임에 성공했다.

15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치러진 제37대 전북체육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정강선 후보와 기호 2번 김동진 후보가 맞붙었다.

각 후보간 소견발표 후 진행된 투표에서는 총 선거인 342명 중 330명 투표(96.49%). 정강선 후보가 170표, 김동진 후보가 160표를 얻어, 10표 차로 정강선 후보가 당선됐다.

정당선인은 민선 2기 공약으로 △생활 체육 활성화, △체육 관련

지도자 및 행정실무자 처우 개선, △전북체육 역사관 건립 추진 등을 약속했다.

정 당선인의 임기는 내년 2월 21일부터 4년간이다.

정강선 당선인은 “경쟁했던 김동진 후보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선거로 분열된 전북 체육을 봉합하고 회합의 전북 체육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동반 성장시키기 체육인이 존중받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



김관영 도지사가 일본 세일즈 외교활동을 시작한 15일 일본 도쿄 KDX빌딩 회의실에서 재일 한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순자 동경 한국상공회의소회장과 전북 생산품 수출 확대 등 전북 경제 전반에 대한 교류와 함께 국제 행사의 전북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도 정시 대비 전북·수도권 대학 전략 안내

도교육청, 내일 입시설명회… 코로나19로 인한 진학 정보 공백 최소화 등 위해 마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 오후 2시부터 창조나래(별관) 시청 각실에서 2023 대입 정시 지원 전략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대입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진학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기주도적 진학 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3 정시 대비 전북권

및 수도권 대학 지원 전략 안내다. 먼저, 대전 보문고 김우진 교사(대교 협 상담교사)가 수도권 지역과 위치한 의대 계열의 대입 정시 주요사항 분석과 지원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올해 정시는 수학의 영향력이 크지만, 탐구 영역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을 지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할 예정이다.

이어 전북권 대학과 고대 등에 대한 대입 정시 지원 전략 설명은 전주한일

고 김상훈 교사(대입지원단 수능전형 팀장)가 맡는다. 지역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은 많지 않지만 수시 이월 인원이 발생할 수 있고, 특정 학과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전형의 변화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정시 자료집 2종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 전략 설명은 전주한일

입 정시 지원을 위한 대면 상담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5~22일까지 평일 오후 4~10시에 대면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 전주·군산·의산은 17일과 18일, 정읍·남원·김제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전주)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전북 진로진학 홈페이지 (<http://www.begokr/jiru>)에서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군산·의산·정읍·남원·김제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전예약과 현장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토·일요일 산문 쉽니다.

전북도, 도시재생 공모 ‘전국 최다’

고창읍 혁신지구 등 4곳 선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2022년 신규 공모에서 전국 최고인 국비 550억원과 4개소가 선정됐다고 밝렸다.

특히 고창군 고창읍 공용버스터미널 일원 혁신지구사업은 전국 유일하게 선정됐다. 2023년부터 5년간 국비 250억 원을 포함한 41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의신시 함열읍 사업은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등과 연계해 식품상권 거점을 조성하고, 임실군 오수면 사업은 ‘오수의경’을 활용한 반려동물 교육문화센터 조성 등 반려동물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부안군 부안읍 사업은 노후건축물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예산 및 신규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특화형 사업 개발 전문가 사전 자문 등 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 대응한 결과다. /김경수 기자

시민 중심, 유품 정읍

2023. 1. 1. 시행

정읍 고향사랑 기부제

정읍 고향사랑 기부 어렵지 않아요~

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이 아닌 국민 누구나
얼마나?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 기부 불가)
언제?	2023. 1.부터

• 정읍시 담례품은...

- 농특산물 쌀, 귀리, 쌈채소, 토마토, 만감류, 잡곡류, 태추단감
- 가공식품 쌈화차, 고춧가루, 마시는 죽, 감식초, 전통주, 한과, 기름류(참·들기름), 오리, 떡
- 고가담례품 한우, 지황 제품

내고향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정읍 고향사랑 기부로 함께해 주세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또는 ‘내가 방문하고 응원하고 싶은 곳’

문의 :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T/F팀 ☎ 063-539-5067~5068

정읍시